



IX공사,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발레 교실' 운영

한국국토정보공사(IX·사장 어병소)가 국립발레단과 함께 문화 소외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발레 교실'을 운영하며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나섰다.

올해로 15년째 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초·중학생들에게 발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를 위해 마련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지난 13일 충남 홍성군 용봉초등학교와 예산군 시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9월 9일 충북 음성군 소이초등학교까지 이어지며, 총합계 초·중학생 9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한필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품격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고창경찰서, 고령자 사고예방 찾아가는 안전교육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는 14일 고창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지역 어르신 30명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전북경찰청, 고창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교통문화연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수칙 △보행 3원칙 '서다·보다·걸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에 밝은 옷 입기 등 동영상 활용에 설명하였고, 질의시간을 통해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건협 전북지부, 취약계층 어르신에 밀반찬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본부장 이영선)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건협 전북지부는 14일 지역 사회복지관과 함께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름맞이 밀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협 전북지부 임직원들은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밀반찬을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했다.

/오상근 기자



## 다시,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강소+ 기업 선정

성장사다리기업 리더스혁신포럼서 최우수 단계인 강소+ 지정서 전달  
지속가능항공유(SAF) 신원료 확보·전처리 기술개발 사업 선정 등 쾌거

전주시는 상립동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친환경 재생 에너지 자원순환 기업인 주식회사 다시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6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주)다시는 이번 선정으로 1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성장사다리기업 리더스 혁신포럼'에서 '강소+ 단계' 지정서를 전달받았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전년도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발굴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 수출지원 사업으로, (주)다시는 수출액 1000만 달러 이상인 강소+ 단계 기업으로 선정돼 기술력과 해외시장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수출 규모에 따라 △유망(10만~100만 달러) △성장(100만~500만 달러) △강소(500만~1000만 달러) △강소+(1000만 달러 이상) 등 4개 단계로 구분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 수출지원서비스 중 해외규격 인증지원을 받아, ISCC EU 인증을 확대하고, 바이오디젤과 지속가능한 항공유(SAF) 원료의 공급망 신뢰성을 높여 해외 수요처를 확대 계획이다.

기존 석유 항공유를 대체한 수단인 SAF(Sustainable



Aviation Fuel)는 친환경 바이오연료로 생산한 지속가능한 항공원료로,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배출이 최대 80%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다시는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과 지속가능한 항공유(SAF) 원료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2025년 매출액 545억 원, 수출액 182억 원을 기록했다. 현재 ISCC-EU 인증을 기반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 미국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정읍 중학생 40명, 황토현서 역사 배우고 카이스트서 미래 설계

'2026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정읍지역 중학생 40명이 황토현에서 고장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진로를 탐색했다.

정읍시가 지원하고 정읍청년회의소(JCI·회장 임형진)가 주관한 '2026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정읍시 일원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들이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비전)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

첫날 참가자들은 황토현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배웠다. 이어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과 지도력 특강에 참여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둘째 날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해 교정과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대학생 길잡이(멘토)들과 진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학 생활과 진로 설계 과정,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



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참가 학생들은 대학생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봤다.

행사 후 만족도 조사에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다수의 학생이 "내년에도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전주매일                                                         |                       | www.jmaeil.com    |                       | 2009년 11월 29일 등록(일간)                  |                       |
|--------------------------------------------------------------|-----------------------|-------------------|-----------------------|---------------------------------------|-----------------------|
|                                                              |                       |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                       |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                       |
| 발행·편집인 조봉성                                                   |                       | 부회장 김승곤           |                       | 부사장 김양옥                               |                       |
| •대표전화 288-9700                                               |                       | •업무국 FAX 288-9703 |                       | •편집국 FAX 288-9704                     |                       |
| 전주시사<br>010-9645-4113                                        | 중앙지사<br>010-9088-6874 | 남원지사<br>632-3996  | 임실지사<br>010-9642-2725 | 진안지사<br>433-3064                      | 정읍지사<br>536-3787      |
| 삼천지사<br>010-2333-4791                                        | 인후지사<br>246-6855      | 김제지사<br>545-1227  | 진안지사<br>433-3064      | 정읍지사<br>536-3787                      | 장수지사<br>010-3682-6157 |
| 서신지사<br>272-9417                                             | 송천지사<br>255-2404      | 남원지사<br>632-0995  | 정읍지사<br>536-3787      | 장수지사<br>010-3682-6157                 | 무주지사<br>010-4172-3800 |
| 호지지사<br>010-6845-9935                                        | 팔복지사<br>253-6844      | 순창지사<br>653-0444  | 부안지사<br>010-2425-4182 | 고창지사<br>563-6999                      |                       |
|                                                              | 군산지사<br>010-8329-6677 | 익산지사<br>658-9923  |                       |                                       |                       |
|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정읍시노인복지관에 성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박춘원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정읍시노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사랑금 400만 원 전달식을 갖고 폭염에 취약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지원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의 '2026년 지역사회 사랑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이번 지원으로 복지관은 야외 사업단 참여 어르신들을 위한 쿨도시와 쿨스카프, 폭염 응급키트를 마련했으며, 폭염 대응 안전교육과 함께 17종으로 구성된 응급키트 사용법을 안내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달식에는 문호범 정읍시노인복지관장과 정원호 전북은행노동조합 위원장, 전북은행 노동조합 간부, 김대석 전북은행 정읍지점장, 정현정 정읍시청지점 영업점장 등이 참석했다.

/오상근 기자

부안군생활개선회,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캠페인

부안군생활개선회는 영농철 농작업 사고와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수칙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읍·면 임원들이 마을회관과 영농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에게 영농 시기별 안전수칙을 알리고, 농작업 안전보호구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농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열염질환,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등 농업인 예방수칙을 쉽게 전달하고 있다.

정진욱 회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안군생활개선회가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운봉읍 지사협, 취약계층 위한 삼계탕 나눔

남원시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도 변함없이 관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영양가득 삼계탕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무더위 속에서 기력이 허해질지 쉬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관계자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영양 보양식 삼계탕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세심히 살폈다.

홍미선 읍장은 "올해 역시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와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정성껏 준비한 보양식을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